

# 알레그리의 <미제레레>와 <모차르트, 천 번의 입맞춤>

촛불 하나만 남기고 모든 불이 꺼지면 교황은 시스티나 성당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다. 구세주의 고난을 기리는 의식에 어울리는 이름, '테네브리'(어둠을 뜻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의식은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인 금·토·일요일 오전 3시마다 어김없이 거행된다. 그리고 교황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합창대는 어둠 속에서 아카펠라로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교황의 비급은 바로 이것, 위에서 언급한 테네브리 행사에서 불려진 알레그리의 <미제레레>였다.

글\_최윤구



<모차르트, 천 번의 입맞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지음 | 박은영 옮김 | 예담  
223쪽 | 값 9,800원

## 교황청의 음악비급이었던 <미제레레>

<미제레레>란 시편 제50편 "Miserere mei, Deus"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의 첫머리 악구로서 회개 시편에서 대표적인 것이다. 조스캥 데프레 등의 작품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교황의 테네브리 의식에서 연주되었던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다.

교황청 성가대를 맡은 그레고리 알레그리에 의해서 1629년 작곡된 이 곡은 1870년까지 시스티나 성당에서 불려졌는데, 처음 이 곡을 들은 교황이 너무나 감명받은 나머지 이 곡을 다른 곳에서 연주하는 것은 물론 악보의 유출과 복사까지 금지시켜 버렸다. 교황청의 음악비급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이 곡은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고 리코딩 되는 가장 인기 높은 르네상스 폴리포니(다성음악) 종교음악이다. 교황의 업명은 어김없이 시행되어 <미제레레>가 외부로 흘러나갈 모든 길이 차단되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여기서 무협지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무협지의 세계에서 불패의 신화를 자랑하는 것 중 하나가 소림사의 십팔금강 나한진이다. 열여덟 명의 소림사 고수들을 꺾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설정되어 있지만, 무협지 주인공치고 십팔금강 나한진을 박살내지 않은 사람 또한 몇 명 없다. 단, 여기에는 주인공이 백 년에 한 번 날까말까 한 무공의 천재라는 전제가 붙는데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를 외부로 유출시킨 인물은 무공으로 치면 무협지의 주인공들 모두가 덤벼도 상대하기 힘들 정도의 절세무공의 소유자, 바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 12세 소년이 감명받은 <미제레레>

아버지를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연주여행을 다녔던 소년 모차르트는 12세인 1770년 이탈리아 여행 중 들른 로마에서 이 곡을 듣고서 큰 감명을 받았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 전무후무한 음악천재의 머릿속에 담겨있던 <미제레레>의 음표들, 9개의 파트로 구성된 두 개의 합창이 부르는 12분짜리 곡은 오선지에 고스란히 옮겨졌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의심하는 것은 신을 의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증명하기 위해서 흔히 거론되는 일화다. 모차르트의 천재 덕분에 우리는 그의 창작물뿐만 아니라 교황청 안에서만 향유되었을 위대한 예술작품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킹스 칼리지 합창단의 역사적인 연주 이래로 이 곡을 담은

음반이 많이 출판됐지만 대중적인 인기도 측면에서 탈리스 스콜라스의 데뷔작을 능가하는 음반은 없다. 정통 있는 성가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영국출신답게 단단한 단원 개개인의 기량을 바탕으로 한 청명한 발성, 초 하이엔드 스피커에서나 볼 수 있을 두 그룹 사이의 널찍한 음장감을 바탕으로 한 안티폰적인 효과(이들의 로마 라이브에서는 합창단을 교회 현장에 맞게 '실전 배치' 함으로써 이런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 등이 음반의 미덕은 많지만 역시 그 중심에는 이 곡이 교황청 안에서만 불리울 때 카스트라토가 담당했던 저 높은 곳을 향해 치솟아 오르는 독창 부분이다.

오늘날은 보이 소프라노가 주로 담당하는 이 부분을 피터 필립스는 소프라노에게 맡김으로써 청명함을 희생하는 대신 기술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훨씬 더 짙은 감정표출에 성공했다. 교황이 했던 것처럼 방 안의 불을 모두 끄고 이 음악을 들으면서도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다.

### 모차르트의 서간집 <모차르트, 천 번의 입맞춤>

자신이 살아 있을 때를 빼고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사랑받았던 모차르트는 물론 한반도의 남쪽에서도 사랑받는다. 그러나 정직하게 또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것은 그의 음악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섯 살 때 처음 작곡을 시작했다는(연주가 아니라) 그의 천재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오페라 전곡이 담긴 DVD 세트가 예상을 깨고 날개 돋친 듯 팔린 한편으로, 들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그의 음악 가운데서도 가장 효과가 좋은 것만으로 엄선된 음반들이 식료품 더미들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모차르트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른바 '모차르트 이펙트'를 내세운 음반들은 매스 미디어가 전문적인 세미나보다 훨씬 더 막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권위자'들의 보증을 어렵지 않게 얻어내고 있고, '태교'라는 모차르트 이펙트와 껍 겹쳐있는 전통을 간직해온 한국의 부모들은 즐겁게 그 음반을 소비한다. 모차르트의 음악은 여전히 '사랑받는다'라기 보다는 '소비당하고' 있다. 슬프지만 그것이 현실이다. 그의 음악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불편하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천 번의 입맞춤>은 할리우드에서 만든 영화 <아마데우스> 때문에

흥내 내기도 힘들 정도로 방정맞고 높은 소리로 웃어대고(이 영화의 국내 디빙판에서 모차르트 역을 담당한 성우에게 그 웃음소리를 제대로 흥내 낸 것은 그의 기나긴 경력에서 큰 자랑거리로 여겨진다) 술을 좋아하며, 때로는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여자들을 쫓는 경박한 사내로 알려진 모차르트의 서간집이다.

<아마데우스> 때문에 누군가 천재에 대해 내린 기가 막힌 정의, 천재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결과에 도달하는 인간이라는 정의는 모차르트를 위한 것처럼 되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지만 말도 배우기 전부터 작곡을 하고, 악기에 손을 대는 순간 연주법을 터득해 버리는 천재.

<천 번의 입맞춤>에서는 모차르트가 '천재'가 아닌 가장, 음악가, 무엇보다 프랑스 대혁명 전야를 살았던 독립적인 자의식을 가졌던 인간 모차르트의 초상이, 그도 피할 수 없었던 때로는 쓰고 때로는 달았던 인생의 '과정'이 담겨 있다.

*"저한테는 좀 이른 듯 했지만 정오 무렵에 점심을 들었습니다... 시종들이 상좌를 차지했고, 저는 가까스로 요리사 뒷자리를 배정받았습니다. 식사 중에는 상스런 농담이 오고갔지만, 저한테는 아무도 농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주교 께옵서는 자기가 자애로운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미화하면서도 그들의 봉사에 대한 지분은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당대의 관례대로 하인들과 똑같은 복장을 하고 귀족과 사제들이 밥을 먹는 동안 들을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해야만 했던 모차르트의 한때다. 당신이 모차르트를 소비하는 대신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책이다.

참, 얼마 전 독일 과학자들이 모차르트의 음악과 지능지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관련 사업 관련자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할인점에서 그 음반을 사는 부모들은 아들 낳기를 바라며 들미룩의 코를 어루만지는 것과 진배없는 마음으로 그것을 카트에 던져 넣는 것임을 아니까. ❧

최윤구 님은 <월간 코드> <조이클래식> <월간 오디오> <What hi-fi> 등에 음반평론 칼럼을 기고하고 있으며, 국민대에 출강하고 있다.